

AUTHOR 최병규

TITLE 마르틴 루터의 영적 시련과 십자가 신학

IN 고려신학보

vol. 20 (December, 1991): 158-173

## 마르틴 루터의 영적 시련과 십자가 신학

### Martin Luther's spiritual Anfechtungen and theology of the Cross

“Omnia bona in cruce et sub cruce abscondita sunt”

모든 선한 것들은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

최 병 규  
(Th.M.2. 역사신학)

#### 서 론

흔히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말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개혁기의 3대 표지였던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그리고 오직 은혜(sola gratia)라는 말들을 상기하게 된다. 개혁자들의 그러한 사상의 근거에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복음 진리의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그들의 주된 신학사상은 이신득의(Justification through faith)의 교리였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는 과연 똑 같은 상황하에서 나온 결실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러한 교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 까지는, 루터의 경우에는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들과는 달리 단순한 교리적 접근만이 아닌 자신의 독특한 실존적 고뇌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을 영적 시련(spiritual Anfechtungen)이라고 한다. 루터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루터만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신학적 고뇌 속에서 출발된 것이다. 그러한 영적 시련은 루터의 신학인 십자가 신학<sup>1)</sup>을 가능케 했

1) 이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이라는 용어는 그의 히브리서 강해 12장 11절의 주석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518년의 하이델베르크 논제(Heidelberg Disputation)에서, 루터는 십자가 신학으로서의 진정한 신학의 본질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다. 십자가 신학(eine Theologie der Kreuzes)은 루터 이전과 그 후에도 있어온 것이다. 그것은 사도 Paul, St. Augustine, 중세의 St. Bernard나 현대의 Kierkegaard의 저술들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Jürgen Moltmann도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으나 성경적 의미에서의 십자가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sup>2)</sup>R. Bultmann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화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죄의 용서까지도 실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sup>3)</sup>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와 결부된 영적 시련(spiritual Anfechtung) 속에서 형성되었다. 말틴 루터가 당시의 시대적 신학적 형편속에서 중세의 신학을 자칭하는 영광의 신학(eines Theologie der Herrlichkeit)에 대항하여 십자가의 신학을 부르짖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 특히 종교개혁에 있어서 의미있는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그의 영적인 시련(spiritual Anfechtungen)속에서 배태되고 형성되었다. 그의 영적인 시련은 중세 신학인 영광의 신학에 대항하여 갈등하던 가운데 義개념의 발견과 십자가 복음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극복된다. 그것은 마침내 십자가의 신학으로 승화되고 발전되었다. 십자가의 신학은 중세의 영광의 신학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십자가 신학의 근거로서의 영적 시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십자가 신학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루터의 신학은 영적 시련으로부터 시작한 십자가 신학에 머물고 있음을 고찰하려 한다.

cf. R. Prenter같은 이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말씀없는 십자가 신학(=이것은 중세 신비주의의 모방 경전에서 공통된 것이라고 함)과 십자가 없는 말씀의 신학 사이에 놓인 좋은 길을 여전히 따라가야 한다고 했으며, 루터는 골고다 위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놓여진 십자가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한다.

2) Burnell F. Eckardt, Jr., "Luther and Moltmann: The Theology of the Cross,"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CTQ)*, January, 1985, pp. 19~28.

3) Rudolf Bultmann, "New Testament and Mythology," in *Kerygma and Myth*, ed Hans Werner Bartsch(London: SPCK, 1953), pp. 36~37. 그는 35페이지에서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자가는 그것의 객관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 신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선재하였고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 자체로서 그는 죄가 없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린 희생물이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희생적·범불죄 유비의 잠동사니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효성이 없다."

## 본 론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형성의 근거가 된 것은 그의 영적인 시련 (Anfechtungen)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Paul Althaus가 지적하기도 한 것처럼, 루터에게 있어서 크리스찬 실존의 정수적이 특징으로서의 Anfechtung은 십자가 신학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sup>4)</sup> 그리고 그러한 Anfechtung은 중세의 영광의 신학으로 인한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루터는 이러한 중세 신학에 대한 갈등을 십자가 신학을 발견함으로써 극복했다. 이 십자가 신학을 형성한 루터는 다시 그것으로써 중세의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영적 시련 (Anfechtung)에 대하여 먼저 살핀 후에, 그 시련의 극복에 도움을 준 義개념의 발견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십자가 신학의 근거로서 접맥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 신학이 영광의 신학을 어떻게 반대하고 비판했는지를 알아보자.

### 1. 루터와 영적 시련 (spiritual Anfechtungen)

루터는 그의 생애를 통하여 깊은 좌절에 빠졌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격정하였다. 그가 Anfechtung이라고 일컫던<sup>5)</sup> 이것은 그가 수도원에 있을 동안 심하게 겪었던 영적인 갈등이었다. 어떤 루터 해석가들은 이러한 Anfechtung에 대해 심리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다.<sup>6)</sup> 그렇지만 우리는

4)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p. 33.

5) Eric W. Gritsch, *Martin-God's Jester: Luther in Retrospec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p. 225. n.35. Anfechtung이라는 말은 여자적으로는 “~와 싸우다” (to be fought at)는 뜻이며, 루터가 종종 사용했던 바 라틴어의 *tentatio*로부터 “시험” (temptation)으로 번역되기도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영어 표현으로는 trials, temptations, assault, perplexity, doubt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the Cross*, p. 33, 70.21.) cf.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p. 23. 사실 이 Anfechtung의 문제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실제적인 이유들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Anfechtung의 문제는 곧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의 사람의 가치성에 관한 것인데, 즉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6) 예를들어, 미국 학자 Preserved Smith는 루터에 대하여 정신분석적 해석을 처음으로 출판했다. (*Luther's Early Development in the Light of Psychoanalysis*,

루터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탁상담화에서 말하기를, “나는 나의 모든 신학을 일시에 배우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했으며, 나의 영적인 시련들 (Anfechtung, tentationes)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그의 신학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Anfechtung의 위치와 중요성을 말한적이 있다.<sup>7)</sup> 루터는 중세 사회를 둘러싸고 있던 설명할 수 없는 시련들에 민감했던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엄격한 규율의 종교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한 엄격주의가 후에 그의 신개념, 즉 하나님을 두려움과 분노의 재판관으로 보게 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한번은 루터가 입회한 곳은 성 어거스틴 수도규칙 (Regula Sancti Augustini)을 받아들인 탁발수도회 (Friars)였던 성 어거스틴 은수사회 (隱修士會: Augustinian Hermits)였으며, Johann von Staupitz (1468/69-1524)는 루터가 입회할 당시에 관구장 (管區長)이었음—스타우핏츠 (Staupitz)에게 불평하기를, “박사님, 우리 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적수들에 연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는 바처럼, 백성을 죄우로 치시는 한 누가 그분을 섬기겠습니까?”라고 했다.<sup>8)</sup>

그때 스타우핏츠와 다른 신부들은 루터가 위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루터가 스타우핏츠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게 보입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대답하기를,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에 대해 달리 생각하기를 배우게. 만약 그분이 그의 백성을 이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열간이들을 어떻게 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치시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게 될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이네.”라고 했다.<sup>9)</sup>

그리고 루터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찾았던 방법중에 한 가지는 고해성사 (sacrament of penance)를 통해서 였는데, 당시에 스타우핏츠와 같은 신학자들은 고해를 진노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보다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4(1913):360~77.) 그리고 루터가 알았던 질병들과 그의 인격과 정신에 대하여는 덴마크의 정신심리학자 Paul J. Reiter가 있는데, 특히 루터의 불안 노이로제에는 그의 아버지에게 관련된 것과, 이러한 면들이 루터의 정신적인 자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Martin Luthers, Umwelt Charakter und Psychose*, 2 vols. (Copenhagen: Leven & Munksgaard, 1937-41) cf. Bernhard Lohse, op. cit., pp. 26-27.

7) “Table Talk,” fall 1532, no.353. LW 54:50.

8) “Table Talk,” early November 1531, no.94. LW 54:11.

9) “Table Talk,” no.94. LW 54:11. cf. Eric W. Gritsch, op. cit., p. 11.

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분의 죄악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하는 하나의 영적인 연습과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sup>10)</sup>

사실 1506년 9월에 루터는 수도許願을 하고 정식 수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루터는 이 허원을 수도자적 세례로 간주하여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벌을 용서해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계속 의식하였고 따라서 의로운 하나님은 만족시킬 수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평화보다는 내적고뇌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William of Occam (1290-1349)의 유명론적 스콜라 신학-유명론자들은 Thomas Aquinas (1225-1274)<sup>11)</sup>의 이성주의 (Rationalism) 즉, 신앙과 이성을 융합하려는 합리주의 신학에 대립하여 인간 이성과 신의 계시 사이의 조화와 초자연계와 자연계의 내적 연결을 거부하면서, 자연을 통한 신존재의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명론 신학에 의하면 계시된 성경만이 신앙의 원천을 이루고 인간성은 무력하며 신앙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며, 인간의 본능은 무능하기 때문에 은총만이 만물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루터는 유명론적 구원관의 영향을 받아 수도생활을 구원을 성취하는 길로 믿던 적도 있었음은 그에게 죄인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명론은 루터의 수도생활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장애가 되었다.

루터는 스타우피츠의 참회 (poenitentia)에 대한 이해를 신뢰했는데, 그는 1518년 5월 30일에 스타우피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존경하는 사제님. 당신과 매우 즐겁고도 유익한 대화를 하는 동안 당신께서 몇번이고 poenitentia라는 단어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끊임없는 그리고 참기 어려운 교훈을 통해 이른바 고백의 방법이 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poenitentia는 오직 정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될 때에만 진정한 poenitentia가 된다는 말씀과, 어떤이들이 poenitentia의 최종 단계이며 완성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poenitentia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꼭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자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능한자의 예

10) Ibid.

리한 화살같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시120:4) 그래서 나는 당신의 진술들을 poenitentia에 관해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당신의 진술에 대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하며 사방에서 나를 향해 튀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단어보다 poenitentia라는 말이 내게 달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책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달콤한 구세주의 상처들로부터 읽어보니 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sup>11)</sup>

이상은 루터가 스타우피츠로부터 참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된 배경을 말해준다. 이 내용중에 “어떤이들이 poenitentia의 최종 단계이며 완성이라고 여기는 것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비엘 (Gabriel Biel 1420-1495)-비엘은 루터에게 성경 대신 유명론적 신학서적들을 권하던 루터의 스승 나틴 (Johann Natin)의 스승이었음-과 오캄주의 학파의 괴변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뉘우침 (contrition)으로 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의 사면 (absolution)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본 반면에, 루터는 스타우피츠와 그의 성경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뉘우치는 마음에 대한 하나의 보상의 면에서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상처들 속에 진정으로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즉, 루터의 새로운 발견은, 그러한 학파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회개의 과정-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을 완성으로 주장했던 반면에, 루터는 그것을 참회의 시작으로 본 것이다.<sup>12)</sup> 이것은 루터가 자기의 Anfechtungen을 극복할 수 있게 된 하나의 동기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들도,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들의 시도들을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계명들을 성

11) LW 48: 65~66. 이것은 그의 개혁정신의 배태기에 요한 폰 스타우피츠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에서 루터는 계속해서 poenitentia라는 말과 metanoia라는 말을 비교해서 설명한다.

12) Eric W. Gritsch, op. cit., p. 12. cf. 지원용 감수, 루터選集, 11권, 상담자 루터(서울: 컨콜디아사, 1988), p. 71n. 2.에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범할까 계속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노예적인 두려움은-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사랑은 마음과 의지에 대한 강한 훈련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수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poenitentia가 완성된다. 스타우피츠의 영향 아래에서 루터는 poenitentia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 내신 하나님의 사랑(즉, 회개)에 이르게 된다고 배웠다.

취하신 그리스도를 신앙함을 통해 죄악된 피조물들에게 그의 사랑을 이미 나타내신 것이다.

루터는 후에 비텐베르크 수도원 내에 있던 탑의 방(Turmstube: tower room)에서 성경본문을 연구하던 중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데, 후에 그것은 탑실 경험(Trumerlebnis: tower experience)이라고 알려졌다. 루터는 1532년 여름의 한 탁상담화에서 말하기를, “이 탑속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성령의 베일을 벗겨주셨다”고 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언급하기를 이 경험은 수도원의 무더운 방(heated room), 수도사들의 비밀 장소(the secret place of the monks) 그리고 세면소(cloaca)에서 발생했다고 했다.<sup>13)</sup> 그러나, 사실 루터는 정확한 장소나 날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탑 바로 아래에 있던 조그만 방(hypocaustum)에서 이 성구를 묵상하다가 조명의 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문구와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다는 문구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justitia passiva Dei)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1545년의 라틴어판 서문에서 1517-1519년 사이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롬 1: 17절의 “그것(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야로 묵상하던 가운데, 나는 말씀의 본문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주시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의해서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 즉 그것으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passive righteousness: justitia Dei passiva), 즉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다시 나게 되었으며(born again)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sup>14)</sup>

13) “Table Talk,” 9 June-July 1532, no. 3232c. LW 54:194.

탑실경험(Trumerlebnis)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개신교 학자들은 1512~1513의 이른 연대를 주장하기도 하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1518~1519까지도 늦추어서 보려한다. 그러나 1512년부터 1519년 사이의 어느 해에 일어났음은 분명하다.

14) “Preface to the Complete Edition of Luther's Latin Writings”(Vorrede Luthers

이렇게 말함으로써 능동적인 의(active righteousness: justitia Dei activa)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적인 의라고 할 수 있을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루터는 유명론적 신학개념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능동적인 의미(justitia activa) 즉, 하나님은 죄인을 공의롭게 벌하시는 분으로 이해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를 발견함으로써, 루터의 기본적 문제이었던 의(칭의) 문제는 신앙(믿음)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신앙에 의한 칭의”, 즉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의 발견은 단순히 지성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다.<sup>15)</sup>

이러한 루터의 의개념 사상은, 사실 1515-16년에 걸친 그의 로마서 강의와 1516-17에 걸친 갈라디아서 강의 그리고 1517-18년의 히브리서 강의들

zum ersten Band der Gesamtausgabe seiner lateinischen Schriften), 1545, LW 34 336~37. quoted in Eric W. Gritsch, op. cit., p. 14.

cf. 루터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어거스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의(justitia Dei activa et passiva)라고 불리었던 것의 정당한 차이점을 발견했다. 즉,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속에 나타났다는 점이다(Gritsch, op.cit., pp. 165~166.)

cf. “Table Talk,” 11~19 June 1540, no. 5070. LW 54:385.

15)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mpany), 122. 루터의 역사적 신앙(historic faith)을 설명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그의 모든 저술들 속에서 숨쉬고 있으며, 그의 행위들을 지배하고, 역경들 속에서 그를 유지해 주었으며, 죽음의 시간까지 그의 방패와 닻으로 남아있었다. 이 신앙은 에르푸르트(Erfurt)에 있던 수도원에서 태어났으며,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의 공적인 행동속으로 초대되었으며 그리고 그들 교회의 개혁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cf. 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p. 50.에서 루터가 신앙을 두 레벨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깨어있는 신앙(faith awake)과 잠자는 신앙(faith asleep)이라고 했다.

cf. Heinrich Bornkamm, *Luther's World of Thought* (S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 House, 1965), 76~90.에서 루터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루터의 신앙은 무조건적 신앙이었고(p. 70), 둘째로 그것은 실재를 믿는 신앙이었으며(p. 80), 셋째로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용감한 신앙이었고(p. 87), 마지막으로 루터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신앙이 선행에서 꽃핀다고 했다.

cf. A.G. Dickens, *The Counter-Reformation* (London, 1968), p. 40.

루터에게 있어서 “신앙에 의한 칭의”, 즉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의 발견은 단순한 지성적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음을 말한다.

을 통하여 깊이 발전해 왔다. 그리고 루터는 “두 종류의 의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인간의 죄에 두 종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의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다. 그중 첫째 것은 외래적인 의(alien righteousness)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the righteousness of Christ)이며, 고전1장30절에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에 대해 신앙을 통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1장17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두번째 종류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인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래적인 첫번째의 의와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는 외래적인 의의 산물이며 사실상 그 열매요 결과라고 한다.<sup>16)</sup>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루터는 새로운 의개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의의 개념은 그 뿌리를 신앙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신앙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함에 있어서 “신앙에 의해서”를 “신앙에 의해서만”으로 대체했다. 바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게 되는 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루터의 영적 시련이었던 *Anfechtungen*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그에게 새로운 기쁨과 확신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의의 문제는 루터의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부되어 논해지고 있다. 루터가 그렇게 *Anfechtungen*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중세적인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감지할 때에, 영광의 신학을 배격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가 스타우퍼츠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책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달콤한 구세주의 상처들로부터 읽어보니 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고 한 것은 곧 십자가 속에서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그의 *Anfechtung*은 십자가 신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

16) LW 34 : 336-37.

cf. 루터는 여기에서 우리의 행함 없이 다만 은혜에 의해서-사실은 아버지께서 내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데-우리 안에 스며 들어온 이 왜레적 의는 원죄와 상반된 것이라고 함으로써 원죄와 하나님의 외래적인 의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으며, 또한 십자가 신학은 루터의 그러한 *Anfechtungen*의 결실임을 알게 된다.

## 2. 루터와 십자가의 신학(eine Theologie des Kreuzes)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학의 내용은 오래 전에 확립되었지만,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서 강해(1518-18)의 12장11절을 주석할 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는 귀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성경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개념들이 빈번하게 병행되어 있다. 예를들어 심판과 의, 진노와 은총, 사망과 생명, 악과 선 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대저 여호와께서…일어나시며…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사28 : 21)의 귀절에서 언급된 것이다… 왜냐하면 시편 4편1절 “곤란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에서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양심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 귀절은 “당신은 나를 중시하셨으며 향상시키셨습니다”의 뜻이다. 이런 것은 은총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로마서5장4절에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을 발견한다. 또는 사도가 고전1장18절과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런데, 루터는 십자가 신학을 언급하면서, 두 종류의 신학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 루터는 신학자로 부를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음을 말했다. 신학자로 불림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물들 가운데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며, 반대로 신학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보이고 명백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십자

17)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ed. James Atkins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16(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pp. 233-34.

cf. Karl Wengenrot, “The Theology of the Cross”,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CTQ)*, October, 1982, p. 270. 루터는 St. Martin's Day에 “Unum praedica: sapientium crucis!” (Preach one thing: the wisdom of the cross!)라고 설교하면서, 고전 1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바 “십자가의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을 간결하게 요약한 바 있다.

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말한다. 십자가 신학의 반대인 영광의 신학(theologia gratia)은 십자가와 십자가를 수반하는 진정한 가치가 전적으로 낮설게 여겨지는 자연인의 신학이다.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영광의 신학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십자가 신학은 사물을 사실 그대로 부른다는 것이다.<sup>18)</sup>

그는 계속해서 영광의 신학자와 십자가의 신학자를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광의 신학자는 고통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고통보다는 업적을,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악함보다는 강함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일반적으로 말해 악보다는 선을 더 좋아한다. 이들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른 사람들이다(빌3:18).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와 고통을 싫어하고 업적과 공적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십자가의 선을 악이라 부르고 한 행위의 악을 선이라 부른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지지자들은 십자가는 선이고 업적은 악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업적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특히 업적으로 혼도받는 옛 아담이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가치하며 그의 업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먼저 고통과 악에 의해 자만이 꺾여지고 파괴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선행에 의해 오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신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와 고통을 싫어하는 신학이다. 그것은 업적과 영광, 강함과 지혜, 그리고 선을 말하는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신학이다. 루터는 자연신학과 사변적 형이상학을 동시에 비판했는데, 하나님을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알기를 추구하는 자연신학과 사변적 형이상학들은 도덕론자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the work righteousness)와 같은 범주에 속하며, 이 둘 다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다 올려놓으려 하는 방식이며, 이 둘 다 인간을 자만으로 인도하거나 혹은 이미 그러한 자만심들이었다. 이 둘 다 인간의 자아(ego)를 상승시키는 것(LW 31:53)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업적이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업적으로 혼도 받는 옛 아담이 십자가에 못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8) LW 31:53. Heidelberg Disputation 19~21 논제 참조.

그리고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Deus absconditus)이다. 루터가 강조했던 이 감추어진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Deus revelatus)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일치적으로 의지의 속박(The Bondage of the Will)에서 발견되며, 또 다른 저서들 속에서도 나타난다. 루터는 이것을 삼위일체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보았고, 에라스무스와 사이에 생긴 문제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연구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다. Otto Ritschl은 이러한 루터의 신개념에 대한 이중적인 구조는 가슴아프게도 두 신들이 있다고 한 마르시온적인 교리를 상기시킨다고 했으며, Reinhold Seeberg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potentia Dei absoluta)과 하나님의 중재력 능력(potentia Dei ordinata)에 관한 둔스스코투스 학파(the Scotist)와 오컴주의자(the Ockhamist)들에 대한 루터의 개인적 전유로서 보기도 했다. 또한 Werner Elert는 말하기를,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리스도 없이 운명의 힘으로써 경험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일치적인 경험을 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도 불구하고 루터의 숨겨진 하나님(the hidden God)과 계시된 하나님(the revealed God)에 대한 개념은 그의 저서 “의지의 속박”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루터는 의지의 속박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이러한 사상의 형성에 있어서 그것의 필수적인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통해 발견한 신개념인 것을 알 수 있다.<sup>19)</sup>

이렇게 말한 루터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신학이 없이는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나쁘게 오용하게 되며,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업적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함으로써 다시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부터 의롭게 됨을 확인한다.<sup>20)</sup>

다음으로 루터는 율법과 은총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죽이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며 정죄한다(롬4:15).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지혜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율법은 회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이 없이는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나쁘게 오용하게 된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나, 그것이 이루어진 일을 결코 없다. 은총은 “이것을 믿으

19) Bernhard Lohse, op.cit., pp. 169~170.

20) Heidelberg Disputation. 24~25.

cf. Paul Althaus, op. cit., p. 32. 십자가의 신학은 또한 루터의 칭의에 대한 이해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말하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함으로써<sup>21)</sup> 율법과 은총의 해석에 있어서 십자가의 신학이 기준이 되며, 이 십자가의 신학이 없이는 올바른 해석이 있을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루터는 또한 95개조 논제 해설(Resolution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에서 58번째 논제를 해설하면서 스킨라 신학-즉 속이는 신학(이것은 회랍어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함.)-이 시작된 이래 십자가 신학이 얼마나 폐기되었으며, 모든 것이 전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신학자(즉 십자가에 목박히신 분과 숨겨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자)는 형벌, 십자가, 죽음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이며 가장 성스러운 유적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sup>22)</sup> 물론, 교회의 참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복음임을 62번째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다.<sup>23)</sup>

그러면서도 루터의 신개념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오직 고통속에서만 알려진다"(God is known only in suffering)라고 하는 것에는 애매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사상속에서는 일종의 변이(transition)가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크리스찬의 고난애로의 변이가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연약성으로부터 인간의 도덕적인 자기 신리에 대한 파괴에 이르는 변이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Paul Althaus는 그것이 이론적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인 존재의 문제라고 본다.<sup>24)</sup> 즉 인간의 삶과 결부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십자가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되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할 때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본다.<sup>2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인데, 그 십자가

21) Heidelberg Disputation. 23~26.

특히 Heidelberg Disputation 21에서 볼 때에 루터의 칭의교리는 십자가 신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22) LW 31:225~26.

23) Heidelberg Disputation 60.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62 논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라고 한 것이다.

24) Paul Althaus, op. cit., p. 28.

25) Ibid.

신학은 신앙의 신학이고 그 신앙의 신학은 곧 그의 시련의 신학(theology of temptation: Theologie der Anfechtung)이며 또한 그 속에 머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십자가의 신학만이 참된 하나님 지식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sup>26)</sup>

##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개혁자 말틴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eine Theologie der Kreuzes)으로 표명되며, 이 십자가 신학의 형성 근거에는 루터 자신의 특이한 실존적인 고민인 영적 시련(spiritual Anfechtung)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루터는 이러한 Anfechtung속에서 그의 십자가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루터의 신학은 시련의 신학(Theologie der Anfechtung)이다. 이 십자가의 신학을 발견한 루터는 당시의 영광의 신학(eines Theologie der Herrlichkeit)을 대항하여 십자가의 신학으로써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루터가 겪었던 영적인 시련은 중세 신학인 영광의 신학에 대항하여 갈등하던 가운데 義개념의 발전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써 극복되고, 마침내 십자가의 신학으로 승화되고 발전되었다. 실로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학의 형성 근거가 된 것은 그의 영적인 시련(Anfechtungen)이었다. Paul Althaus의 말과 같이, 루터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의 실존의 정수적인 특징으로서의 Anfechtung은 십자가 신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십자가의 신학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은 그의 영적인 시련(spiritual Anfechtungen)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루터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련의 극복, 즉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 작업이었다. Philip Schaff도 그의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에서 루터의 역사적 신앙(historic faith)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서의 이 신앙은 그의 모든 저술들 속에서 숨쉬고 있으며, 그의 행위들을 지배하고, 역경들 속에서 그를 유지해 주었으며, 죽음의 시간까지 그의 방패와 닻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신앙은 에르푸르트(Erfurt)에 있던 수도원에서 태어났으며,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의 공적인 행동속으로 초래되었고 그를 교회의 개혁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듯이, 루터의 영적인 시련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즉 의개념의 발견(여기에는 그의 신관의 변화 즉, 숨겨진 하나님

26) LW 31: 55. "그렇다고 해서 지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며, 또한 율법이 회피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 없이는 사람은 선한 것을 가장 나쁘게 오용한다."



개념도 함께 취급)을 통하여 극복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루터가 형성한 십자가의 신학은 거슬러 올라가 그의 *Anfechtung* 과 함께 접맥되고 있고, 영적 시련으로부터 연유된 그의 십자가 신학은 종교개혁의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27) J. Calvin의 경우는 십자가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문제를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는데, 기독교강요 II권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구속사업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인간이어야만이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성육하신 인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십자가의 의미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의 저주를 받았으며,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박탈당했으며, 사탄의 노예, 죄의 멍에를 맨 포로요, 결국 무시무시한 파멸에 개입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변호자로 개입하셔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걸머지시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든 죄악을 그의 보혈로 도말하셨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과 희생을 돌렸으며, 중개자로서 하나님이 진노를 화해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련된 평화의 기초"라고 말했는데 (Inst. II xvi.2), 여기서도 강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소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칼빈은 계속하여 이러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 때에야만 이 부분의 고난과 모든 사역들이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extra nos) 계시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실 고난과 모든 사역은 아무 쓸데 없는 것이 되고 만다"(Inst. III.1)고 했다.

Luther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이라는 변이로 나타났듯이, Calvin도 Inst. III.viii.1에서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는 Aufgabem을 말했다.

## Bibliography

- 지원용 감수, 루터選集 제1~12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8.  
 \_\_\_\_\_ 말틴 루터(生涯와 思想), 서울: 컨콜디아사, 1987.  
 \_\_\_\_\_ 루터의 思想, 서울: 컨콜디아사, 1982.  
 \_\_\_\_\_ 루터와 宗教改革, 서울: 컨콜디아사, 1988.  
 \_\_\_\_\_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9.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Atkinson, James ed.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16.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Bainton, Roland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ston: Beacon Press.  
 Bornkamm, Heinrich. *Luther's World of Thought*. S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 House, 1965.  
 Dickens, A. G. *The Counter-Reformation*. London, 1968.  
 Ekardt, Jr., Burnell F. "Luther and Moltmann: The Theology of the Cross," i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CTQ)*, January, 1985  
 Gritsch, Eric W. *Martin-God's Court jester: Luther in Retrospec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Lohse, Bernhard.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Luther, *Heidelberg Disputation. LW 31*.  
 \_\_\_\_\_ *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 LW.31*.  
 \_\_\_\_\_ *Preface to the Complete Edition of Luther's Latin Writings(Vorrede Luthers zum ersten Band der Gesamtausgabe seiner lateinischen Schriften), 1545, LW 34*.  
 \_\_\_\_\_ *Table Talk in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Edited by Jaroslav Pelikan and Helmut Lehmann. Philadelphia and St. Louis: Fortress Press and Concordia Pub. House, 1955. LW. 54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 (The German Reform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Schwiebert, E.G. *Luther and his times*. Concordia Pub House, 1950.  
 Wengenrot, Karl. "Theology of the Cross", in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CTQ)*, October, 1982.